

최우수 사이버대학에서 최고 사이버대학원까지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 www.iscu.ac.kr 석사과정 : grad.iscu.ac.kr

대 학 원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 석사과정

2011학년도 학사 신·편입생 모집

모집기간 : 12월 1일(수) ~ 12월 30(목)

학 부

인간복지학부 :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상담학부 :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상담심리학과
사 회 과 학 부 : 법무행정학과, 부동산학과, 보건행정학과
경 상 학 부 : 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IT·디자인학부 :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입학문의 02-944-5000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DT브랜드파워대상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설립

-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 석사과정

SCU e야기

e세상을 움직이는
서울사이버대학교

Vol. 11

Cyber World | 사이버 세상 속 '재미'

SCU Today | 특수대학원 설립 인가

여기 e 사람 | 이영탁 교수 · 이용규 총동문화장 · 구 혁 동문

Special Theme | 글로벌 리더 양성-경상학부



ISSN 2005-2049
9 772005 204905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
www.iscu.ac.kr

오프라인에서 하나 된 서사인 제8회 한마음 대축제

온라인 교육의 배움, 현장에서 실천하다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소통'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말로서, 글로서 우리는 소통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며 관계를 만들어간다. 하지만 말이나 글보다 더욱 솔직한 소통의 언어가 있으니 바로 '땀 흘리며 단합하는' 소통이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축제장에 체육대회가 빠지지 않는 이유다. 2010년 10월, 푸르른 가을 하늘 아래 서울사이버대학

인들은 함께 땀 흘리는 즐거움 속에 또 다시 하나가 되었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 한마음 대축제가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재학생들의 유대강화 및 애교심 증진을 취지로 시작돼 매년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마음 대축제'는 10월 9일, 본교 신일캠퍼스 운동장에서 개최돼 재학생은 물론 재학생 가족, 졸업생, 교수 및 직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하나 되는 서사인! 즐거운 한마음!'을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대축제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학부별 4색 4팀으로 구성돼 팀플레이를 펼친 축제장은 열린 응원과 선의의 경쟁, 화합으로 인해 하루 종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행복팀(인간복지학부), 모아팀(심리/상담학부), 하나팀(사회과학부), 미래팀(경상/IT학부)은 각각 파랑, 노랑, 초록, 빨강을 팀 컬러로 지정해 축구, 피구, 족구, 계주 및 단체줄넘기의 체육 행사, 한마음 명랑운동회, 길쌈놀이, 장기자랑 등 학부대항전을 펼쳐 행사장 분위기를 활기차게 주도해 나갔다. 또한 초대공연, 가족 참가자들을 위한 훌라후프 왕중왕 선발전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부대행사장인 Funny Zone에서는 페이스페인팅, 타로점, 포춘쿠키 등 각종 오락시설까지 마련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프라인서 SCU인의 단합과 유대감,





애교심까지 높여주는 일품행사 자리매김



이은미(부동산학과 4년)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일반인들은 사이버대학이라고 하면 온라인 수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오프라인에서 모일 기회가 드물 것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100여 개의 동아리와 커뮤니티들이 매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각종 대내외 봉사활동을 비롯해 온라인 교육의 배움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대학인 사이버대학 중에서도 특히 오프라인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그동안 한마음 대축제 외에도 단체 공연관람, 지역별 예술 문화행사 등 다양한 오프라인 만남을 추진해 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여왔다.

한편, 이번 한마음 대축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학생을 비롯해 부득이 축제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기도 했다.

- 1 '하나 되는 서사인! 즐거운 한마음!' 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8회 한마음 대축제는 재학생 및 가족, 졸업생, 교수 및 직원 등 1,500여 명의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 2 이은미 서울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부동산학과 4학년)이 총학생회기를 흔들며 개회를 선언하는 모습
- 3 학부별 4색 4팀으로 구성돼 팀플레이를 펼친 이날의 운동장은 열띤 응원과 선의의 경쟁, 화합으로 하루 종일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 4 가족 참가자를 위한 경기 프로그램 및 Funny Zone 상설전시장에 마련된 오락시설은 일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5 6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한마음 대축제를 비롯해 각종 예술 문화행사 개최를 통해 온라인 대학의 한계를 넘어 오프라인 교류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다.

사이버 세상 속 '재미' 상상이 '현실' 되는 사이버 세상 새 문화 코드 속에서 찾는 삶의 희열

바야흐로 사이버 시대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닌 때가 왔다. 덕분에 대중들이 즐거움을 찾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사이버라는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가상현실과 만나게 된 까닭이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코드로 부상한 사이버 속의 새로운 세상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글 | 편집부



지 난 10월, 세계 게임 대회인 WCG에서 프로게이머 김성식(서울 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4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동안 한국팀은 유독 워크래프트3에서 약세를 보였다. 김성식의 우승은 한국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곤 했던 마누엘 스펀카이젠을 2:1로 꺾고 일구어낸 7년 만의 쾌거였다. 때문에 이를 지켜보던 캐스터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였다.

사람들은 마우스만 클릭하는 게임이 어떻게 스포츠가 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e-스포츠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과 열정은 축구나 농구와 같은 여느 스포츠 못지않다. 실제로 김성식의 금메달 소식을 알리는 기사가 인터넷에 오르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백여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또한 그는 인터넷검색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 1위까지 차지했다. 이를 통해 WCG 우승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잘 알 수 있다.

갈수록 높아지는 e-스포츠의 인기

컴퓨터를 이용한 여가 생활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임은 이제 단순한 놀이거리에서 벗어나 e-스포츠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레저의 한 종류가 되었다. 최근 e-스포츠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보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전문게이머들을 위한 프로리그도 생겼다. 여러 명의 프로게이머가 등장하면서 스타플레이어도 생겨났다. 이기고 지는 경기를 관전하는 것은 마치 스포츠경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덕분에



실제로 컴퓨터가 보급되고 대중화된 이후, 컴퓨터를 이용한 여가생활이 많이 늘어났다. 게다가 컴퓨터를 비롯해 인터넷을 활용한 문화 생산까지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블로그나 UCC뿐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소통공간이 생기면서 사이버월드는 명실상부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처럼 기술의 발달은 사이버월드를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었다.

▼세계 게임 대회인 WCG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성식 학생(서울사이버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4학년). 그는 10월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진 WCG 2010 그랜드 파이널 워크래프트3 결승전에서 마누엘 쉐카이젠을 상대로 2대 1 승리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워크래프트3 팬들의 7년간 염원을 이뤄내는데 성공했다.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상에서도 e-스포츠의 다양한 부가활동들에 빠져드는 이들도 늘었다.

일반 스포츠스타를 응원하는 것처럼 프로게이머의 팬카페도 생기게 되었다. 실제로 e-스포츠 방송을 보면 마치 야구경기를 보러 오는 것처럼 현장에 나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를 응원하러 오는 팬들이 많다. e-스포츠의 장점은 체력적인 문제나 시간적인 측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데 있다. 물론 직접 전략을 세우고 게임을 하는 즐거움은 최우선의 재미다. 아직은 e-스포츠가 낯설기만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e-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가상과 현실이 하나가 되다

가상현실은 컴퓨터상 그래픽으로 구성된 공간에서의 삶을 말한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MMORPG(다중 접속 역할 게임)은 컴퓨터 안에 만들어진 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는 일종의 가상현실이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게임을 넘어서 또 하나의 생활공간이 창출된다.

한국에서는 단지 게임 자체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외국의 온라인게임을 하다보면 종종 특이한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마치 세계의 주민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역할게임인 RPG에서는 가상의 세계를 만들고 자신의 배역을 받은 다음 그 세계에서 맡은 배역대로 대사를 하면서 게임을 진행한다. 현실에서의 자신은 잊고 그 세계에서의 자신만이 존재하듯이 행동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게임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덕분에 사람들은 게임이라는 가상현실 속



에서 단지 역할놀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 해보지 못한 다양한 행동들을 시도해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이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면서 모니터 상에 머물던 가상세계가 현실세계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증강현실이다. 카메라를 통해서 현실을 비추면 그 위에 컴퓨터그래픽과 정보가 덧씌워져 실제와 가상을 합친 세계를 보게 된다. 그때부터는 블로그에 올릴 필요도 없어진다. 책을 비추면 그 책에 대한 평가가 책 위에 뜬다. 심지어 책을 펼치면 다른 책안의 캐릭터들이 살아 움직인다. 마치 상상의 세계를 보는 창문을 갖게 된 셈이다. 이처럼 사이버 시대에는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재미들이 넘쳐난다.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상상이 현실의 경험으로 되는 순간이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설립승인

온라인 석사 시대 본격 개막, 지속가능 사회 기여할 G형 인재 기른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온라인 석사 시대 본격 개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교과부의 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 설립승인에 따라 휴먼서비스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등 2개 대학원을 운영하게 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실용적이고 특성화된 전공, 차세대 표준규격 채택으로 타 사이버대학원과 차별화된 선진 학습시스템을 적용해 국내 e-러닝 선두주자로 다시금 도약하게 됐다.

글 | 편집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특수대학원 설립승인은 하루아침의 일이다.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돼 종합대학교 승격을 마친 이래, 각 학부를 대표하는 교수들과 관련 교직원들로 SCU특수대학원설치위원회를 구성한 때가 2008년 6월이다. 이날로부터 특수대학원 운영 방침을 설정해 사전준비 및 시스템 정비, 교육여건 마련에 박차를 가해온 성과이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개강을 앞둔 서울사이버대학교 특수대학원은 휴먼서비스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으로 각각 석사과정에 60명씩, 총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올해 최종 대학원 설립 인가를 받은 서울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원광디지털대 3개 대학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서울사이버대학원 설립에 있어 차세대 교육으로 인

정받는 e-러닝 시스템이 한 단계 진보됐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국내 e-러닝 패러다임의 선두주자임을 인정받은 것이자 앞으로의 질적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만한 일이라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화된 교육, 시대가 원하는 전문가 양성

개설되는 대학원은 휴먼서비스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과정), 상담심리대학원(상담심리학 석사과정)이며, 두 대학원 모두 미래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먼저 사이버대학 최초로 개설되는 휴먼서비스대학원은 미래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실천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 및 서비스 연구, 실천과 응용, 사회서비스기관 설립 운영의 세 가지 트랙으로 학위과정이 운영되며, 학생들은 각 트랙에서 다각적이며 심층적인 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학위 이수 후 전망도 밝다. 사회복지 및 서비스연구자, 사회복지 실천전문가, 사회서비스기관 CEO 및 컨설턴트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

지사 자격증 취득도 적극 지원된다.

그런가하면 상담심리대학원은 최다 교수진과 최상의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유명하다. 다양한 세대와 문화가 공존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문제해결에 능동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창의적 상담인재 양성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 특히 특성화된 2개 트랙을 구축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해당분야 상담전문가 배출이 목표다.

전공 후 진로는 세대간 상담(청소년, 노인 및 가족상담), 위기관리 상담(위기상황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담 및 치료분야), 일반상담(종합적인 상담 및 치료분야) 분야로 나뉘며 이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발달심리사, 전문상담사, 범죄심리사, 가족상담사, 부부상담사, 가족치료사 자격증 취득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서울사이버대학원의 수업은 각 전공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전문 강사진과 튜터의 운영을 토대로, 모든 수업과 학사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사과정 진행상 교수와 학생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학교측은 다양한 세미나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상호작용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국내 최초 국제 이러닝 표준 개발 컨소시엄인 IMS Global Learning Consortium의 정식회원사로서, 대학원 학습시스템의 표준규격을 IMS Common Cartridge로 채택하여 타 사이버대학원과 차별화되고 선진화된 차세대 교수학습 시스템을 적용한다.

T형 인재의 진보, SCU는 G형 인재다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왔다. 지금까지는 나날이 복잡하고 고도화 되어왔던 현대사회에서 다재다능한 멀티플레이어가 각광을 받았다. General Specialist라 불리던 'T형 인재'가 그것으로 다방면에 관심과 능력을 갖추면서도 특정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의미했다. 하지만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직면하면서 'T형 인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물론이고 조직과 사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소통과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때 서울사이버대학원이 내세우는 인재상은 'G형 인재'다. 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T형 인재'의 진보된 개념인 'G형 인재'는 'T형 인재'의 다재다능한 역량을 기본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윤리성과 신뢰성이 겸비된 인재를 의미한다.

'G형 인재'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인물이다. 물질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적 만족을 포함한 다양한 욕구들이 해결되어야 지속가능 사회 구현이 실현된다는 명제 하에, 윤리적 소양을 갖춘 인재인 'G형 인재'가 대두된 것이



Mini Interview

이재웅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e-러닝 패러다임의 선두 SCU, 제2의 도약 꿈꾼다

이재웅 총장은 대학원 설립 인가를 통해 서울사이버대학교가 힘찬 날개짓을 하게 됐다고 표현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대학원 설립 인가를 위해 그간의 연구업적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던 만큼 오늘의 감회가 더욱 특별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와 상담심리분야 전문 인력양성은 세계화시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학교



의 특화된 대표 학과이기도 해 학생 개인은 물론 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토대로, 양적·질적인 성장까지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체된 오프라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극복할 유일한 해답이 사이버교육이라고 늘 강조해왔던 이재웅 총장이었다. 그러므로 개교 이래 국내 굴지의 온라인 명문대학으로 성장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이번 대학원 설립을 통해 획기적인 도약을 맞으리라 확신한다.

"우리 대학교는 온라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강화에 주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차세대 이러닝 시스템인 'SCU Learning WAVE'와 교수학습시스템을 개발해 글로벌시대에 맞는 참여, 토론 위주의 능동적 수업을 지원하게 됐으며, 콘텐츠를 구성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재생산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사이버대학 최초로 U-캠퍼스를 구축,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교과부의 엄정한 평가에도 이번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원 설립인가를 통과한데는 그걸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국내 e-러닝 패러다임의 선두주자로서 양질의 대학원 교육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뜨겁다.

"사이버대 설립 10년여 만에 만 여명의 재학생, 만 여명의 학사 학위자를 배출해낸 저력으로 앞으로는 우수한 석사 학위자 배출과 제2의 도약을 준비할 때입니다. 재학기간 동안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졸업 후에도 동문으로서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 구체적으로는 통합적 지식을 갖춘 'Generalist',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Specialist', 윤리적 소양을 갖춘 'Ethicist',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포함한 4대 인재상을 말한다. 지속가능사회 구현에 기여할 'G형 인재'들이 서울사이버대학원의 큰 배움을 통해 세상을 향해 도약할 날이 멀지 않았다.

세계미래포럼 이사장 · 금융보험학과 이영탁 석좌교수

세계의 중심 화두가 된 '미래' 목표 향한 창조 노력으로 새 길을 열다

요즘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한다. 단기적인 안목으로 앞날을 바라봐서는 앞으로 닥쳐올 미래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영탁 석좌교수(이하 교수)는 오래 전부터 '미래'라는 화두를 고민해온 선각자라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세계미래포럼을 창설하고 국내외 리더들과 함께 미래창조에 여념이 없는 그를 만나보았다.

글 | 편집부

이영탁 교수는 활기차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하는 당부도 남겼다. 미래를 준비하고 창조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면, 다음으로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어 떤 이들은 미래에 대한 논의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영탁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과거 지향적이고 현실안주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게 안타깝다는 것이다. 행정고시를 거쳐 교육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한 그의 안목은 실로 남달랐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더 멀리 봐야 한다

“보통 걸음으로 걸을 때는 5~6미터 전방을 보면 되지만, 속도를 내서 달리기 시작하면 20~30미터 앞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더 멀리 봐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 교수가 세계미래포럼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다. 실제로 세계미래포럼은 미래에 대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매월 초찬모임을 운영하며, 글로벌 리더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하고 있다. 또 기업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미래경영 CEO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은 집단지성 시대입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잘 모으면, 그것은 소수의 뛰어난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현재는 세계미래포럼이 미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지만, 앞으로는 미래지식의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해 가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 오늘날보다 나은 내일, 더 멋진 미래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이영탁 교수는 오래 전부터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와 세상』이란 저서를 출간한 바 있는 이 교수는 그의 집가훈 또한 바로 ‘예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 2000년대 초 이메일 주소를 만들 때에도 ‘ytle’라는 이름 이니셜 뒤에 ‘2020’이라는 숫자를 붙였을 정도다. 이처럼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미래에 대한 고민이 넘치는 그는 진정으로 미래사회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서려면 저마다의 ‘바람직한 미래’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막연하게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나 자신이 이렇게 되어 있으려니 예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걸맞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미래의 개념이죠. 그래서 저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오랫동안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고심해온 그는 서울사이버대



이영탁 석좌교수 Profile

- 행정고시 제7회 합격
- 재정경제원 예산실장
- 교육부 차관
- 제16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 KTB network 대표이사 회장
- 제7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
-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 현세계미래포럼 이사장



학교가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교육에 대한 전망도 밝게 보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 바로 교육시장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교육 분야에서 앞서 나간다는 것은 전 세계의 교육을 리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역할과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활기차게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생들에게 전하는 당부도 남달랐다. 미래를 준비하고 창조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 ‘미래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다면, 다음으로는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사흘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었더니, ‘부모님을 찾아뵙겠다’, ‘좋아하는 사람과 근사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겠다’, ‘최근에 싸운 친구와 화해하겠다’ 등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은 교수가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Do It Now!’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설계와 창조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영탁 교수의 말대로, 발전적인 방향 아래 미래 설계와 창조를 위해 매진한다면 우리 사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 이처럼 더 나은 내일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미래전도사 이영탁이 열어주는 미래사회 미래와 세상



『미래와 세상』은 미래학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다양한 주제를 12가지로 정리하여 분석, 전망한 책이다. 미래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와 최신 이론, 미래학의 예측방법 그리고 주요 용어를 정리한 미래용어사전을 수록하였다. 네트존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개인권력의 부상에서부터 미국과 중국의 G2시대, 인구변화와 평균수명증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인공지능, 로봇, 인터넷, 교육과 일자리, 기업과 경영, 라이프 스타일, 미래인의 행복까지 총체적으로 담았다.

이영탁 지음, 미래를소유한사람들 펴냄

SCU 총동문회장 조용규 동문

시대 주도하는 최고의 명문 기대 “SCU, 이제 우리가 챙겨야죠!”



동문(同門). 이름만 들어도 남다른 유대감이 형성되는 존재들이다. 이는 단순히 한 울타리 안에서 지식을 쌓았다는 공통된 경험이나 추억 때문만이 아니다. 동문이란 나의 사회적 가치를 대변하는 잣대 중 일부요, 모교의 위상을 상징하는 요소인 까닭이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의 3대 총동문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용규(경영학과 '04년 졸업) 동문은 이야기한다. 내 식구가 잘되는 모습을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냐고.

글 | 편집부

아 침 안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이른 시각. 서울 외곽에 위치한 전자식안정기 제조업체 (주)광명하이테크' 사무실은 이미 업무에 대한 열기가 한창이다. 조명 관련 전자기술을 개발, 그에 해당하는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이곳은 지난 2002년 조용규 동문이 커다란 포부를 안고 설립한 회사이다.

“업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자신이야 있었지만, 경영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기업을 체계적으로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공부が必要하겠다고 판단되었죠. 그때 제 손을 잡아준 게 서울사이버대학교입니다.”

느지막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가장을 지켜보면서 가족들의 염려도 적잖았다. 그러나 조용규 동문은 당당히 경영학과(당시 e비즈니스학과) 제1기 졸업생이 되었다. 학위를 수여 받던 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어준 아들딸의 모습이 눈앞에 선 하다면 초로의 그는 함박같이 웃는다.

기업 운영만 해도 하루하루가 꽤나 벅찼을 법한데, 학교생활 또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던 조용규 동문. 학업뿐만 아니라 교내외 봉사활동까지 앞장서서 자처했을 정도로 학교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기 일쑤였다.

“덕분에 3대 총학생회장까지 역임하게 되었죠. 회사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과정에 있었던 터라 여러모로 여유가 없었는데, 그 일을 다 어떻게 했었는지... 돌이켜보면 제 생각은 오로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학교가 곧 내 얼굴이다’라는 마인드! 그렇잖아요. 학교가 발전해야 저희들에게도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조용규 대표의 이러한 학교 사랑을 동문들이라고 모를 리 없었다. 학교를 향한 특별한 사명감과 자기



희생을 높이 평가한 동문들은 2009년, 그를 다시 3대 총동문회장으로 추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사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말 못하는 애로 사항을 알아주고 언제나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동문들이 있어서 힘을 낼 수가 있었지요.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입니다.”

송년 행사 ‘서사인(서울사이버대학인)의 밤’ 개최를 앞두고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조용규 동문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심경이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2년간 수행해 온 총동문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더 탄탄하게 기반을 닦아놓고 자리를 물려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다소나마 남는군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교와 동문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도 마다 않고 열심히 할 겁니다.”

SCU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 주축이 되어 모교의 위상을 드높이 펼칠 날이 목전에 있다고 확신하는 조용규 대표. 그 신념만큼이나 다부지게 조형된 서울사이버대학교 배지가 동문의 가슴 한쪽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후배 최다 추천, 조기졸업 예정 구혁 동문

누구나 꿈꿀 수 있고 노력하면 그 한계 넘을 수 있다

배움의 길을 가는 데에 제약이란 있을 수 없다. 깨우치고자 하는 열망과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패스트푸드점 직원에서 상담심리학자를 꿈꾸기까지, 조금 늦은 나이에 '공부의 맛'을 알게 된 구혁(사회복지학과 '08년 입학) 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아니었다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학교에 대한 짙은 사랑을 보였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뜨겁디 뜨거운 학구열을 갖게 한 것일까.

글 | 편집부

ㅎ 트러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자태하며 총기 어린 눈빛, 그리고 반듯한 말씨. 구혁 동문은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육군 3기갑여단' 소속의 부사관(차량 정비 담당)이다. 공적인 신분으로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놀랍게도 그는 이번 겨울 계절 학기를 끝으로 조기졸업까지 앞두고 있었다.

“선배님들과 동기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사실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제 여건을 이해하고 배려해주신 교수님들의 격려도 크게 한몫했구요.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제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잡아준 은인이랍니다.”

본교 사회복지학과 1기 졸업생이자 원주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허기복 목사와 연이 닿아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는 구혁 동문. 그에게 있어서 사회복지학은 세상을 달리 바라보게 만들어준 창이었다고.

“허기복 목사님을 따라 연탄은행과 밥상공동체 봉사에 참여하면서 사회복지라는 학문에 관심이 생겼어요. 왜 서울사이버대학교였냐고요? 우선 온라인 대학으로는 그 전통을 따를 만한 곳이 없잖아요. 게다가 학생회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무엇보다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부의 중요성을 딱히 깨닫지 못한 채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로 꽃 같은 20대를 보내다가 입대를 했던 그가 처음 대학 입학에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단순했다. 제대를 앞두고 안정된 직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정한 진로가 직업 군인이었지만, 장기근속을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계기는 비록 미미했지만,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



니 이렇게 흥미로운 것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배움이란 게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진작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공부를 미처 마치지 못한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존재를 열심히 알리고 있습니다.”

후배 최다 추천자로서 큰 두각을 나타낸 구혁 동문은 복수 전공과목으로 '군경상담학'을 선택, 한창 매진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군경상담학 수업을 통하여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상담심리학을 한층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사과정까지 밟아 상담심리학자로서 교단에도 서고 싶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지요. 불과 3년 만에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덕분 아니겠어요?”

구혁 동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로 인하여 '평생교육'의 가치를 깊이 인지하게 되었다며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그의 얼굴에는 열정으로 뽀뽀 뭉친 아름다운 미래가 건설되어 있었다.





2010년 경상학부 최초의 '공동학술대회'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 양성 **경상학부**

이론과 실무 겸비한 세계 최고 비즈니스 스쿨을 꿈꾼다

한때 유행했던 농담 중에 '국제항공편으로 입국한 해외박사의 절반은 경영학박사'라는 말이 있었다. 그만큼 국내외 경영학 전공자가 많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어렵게 학위를 받은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전공자가 아무리 늘어도 국가사회에서 성장 동력으로 제 역할을 해낼 비즈니스 전문가 수요는 끝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상학부는 '우리는 다르다'고 말한다.

글 | 편집부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이 '21세기형 글로벌 비즈니스리더'라는 표현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상학부는 여기에 '진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인다. 학습이론과 실무능력이 겸비된 리더,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넓은 시야,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 역할을 해야 '진정한'

인재라는 것. 그러나 아직도 끝은 아니다. 학부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등 3개 학과를 연계하여 '정보&노하우 공유'까지 달성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진정한 비즈니스 전문가를 원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IT기술 발달로 인한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를 비즈니스 무한경쟁시대에 돌입시켰다. 이에 수반되는 무역물류의 중요성, 금융 위험요인 증대 또한 과제가 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상학부 내 교육과정은 이러한 21세기 시대에요구에 초점을 맞춘 '진정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경영학과는 글로벌 경영패러다임과 경영 신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최신 경영이론의 학습, 미래지향적인 경영기법 연마를 통해 최고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전문 경영인과 비즈니스 리더 양성을 위해 세분화된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국제무역물류학과는 국내외 최초로 무역과 물류를 통합시킨 학과다. ‘무역 없는 국가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무역(수출입)과 물류(유통)가 별개일 수 없음을 일찍이 인지한 선견지명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전자무역시대에 필요한 무역실무,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경영안목, 국가경쟁력의 핵심과제인 물류 유통관리의 지식과 실재를 습득한 진정한 무역물류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보험학과 역시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과 중요성에서 출발했다. 금융 전반의 원리 습득, 효율적인 자금 조달과 운용, 증권투자, 외환관리, 위험관리 및 은행과 보험 등에 대한 새로운 금융기법을 연마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진정한 금융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그 목표다.

무한경쟁시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해답

그렇다면 진정한 21세기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상학부만의 특성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광호 경영학과장, 김영민 국제무역물류학과장, 서영수 금융보험학과장은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이 동시에 추구되는 사이버대학이기에 가능했던 장점이라고 설명한다.

첫째, 이론과 실무가 완벽하게 접목되어 있다. 해당 분야 실무경험이 전무한 일반대학 전공학생들과 달리, 서울사이버대학교 재학생들은 이미 전공분야에서 사회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80% 이상이 현업에 종사 중이니 수업이해도 및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둘째, 타 사이버대학교보다 월등하게 오프라인이 활성화 되어 있다.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한 재학생들인 만큼 학년별, 학과별로 스터디 및 취미,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유가 용이하다. 사이버공간에서 학업성취를, 오프라인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은 국내 사이버대학 중에서 최고다.

셋째, 실무에 실질적인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현직에 있는 재학생들은 꼭 필요한 자격증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목표가 분명한 만큼 더욱 치열하게 공부한다. 경영학과에서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창업지도사, 판매관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물류관리사, ERP컨설턴트, 정보검색사, Entrepreneurship(창업지도사: 미국 존드국제대학교와 공동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국제무역물류학과에서는 국제무역사,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관세사, 전자상거래관리사 등을, 금융보험학과에서는 CFP, AFPK, 손해사정사, 증권투자상담사, 선물거래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FP), 외환관리사, 신용분석사, 재무분석사(CFA) 등의 자격증 취득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Mini Interview

전광호 경영학과장

10년내, 온라인 세계 명문으로 우뚝설 것

“경영학과는 어느 대학이나 똑같다? 우리 대학은 아닙니다. 신, 편입생 전원을 멘토-멘티로 연결해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기쁨을 알게 합니다. 공부는 사이버(디지털)로 하되 관계는 정(아날로그)으로 엮는 디지로그지요. 10년 내에 온라인 세계 최고로 우뚝 설 겁니다.”



김영민 국제무역물류학과장

최초로 무역 물류 통합한 경쟁력 있는 학과

“우리 학과를 약자로 ‘국물’ 과라고 하는데요. 부연하자면 ‘맹물이 아닌 진국’ 입니다. 국내외 최초로 무역 물류를 통합한 경쟁력 있는 학과이자, 자격증 획득을 원하는 재학생에게는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해 높은 성공률을 보장합니다. 무역협회, 세관 등의 오랜 실무경력자들이 겸임교수로 활약해주고 계시지요!”



서영수 금융보험학과장

실무 겸비한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 강점

“재학생의 80% 이상이 금융업계 종사자라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강점입니다. 재학생 니즈에 맞춰 커리큘럼도 이론과 실무 각각 50:50으로 짜서 운영하는데요, 우리 대학이 사이버대학 최초 AFPK(국제공인 재무설계 자격증) 인증기관인 만큼, 학생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은 확실히 챙겨갈 수 있습니다.”



넷째, 높은 대학원 진학률이다. 현재까지 경상학부 졸업생들의 20% 이상이 명문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국내 사이버대학 최고의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다.

한편, 11월 20일 경상학부 최초로 시행된 3개 학과 ‘공동학술대회’도 의미가 크다. 각종 전공, 산업분야에서 성공 비즈니스를 수행 중인 재학생들을 통해 경영노하우 공유, 학과별 학술논문 발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초청강연 등 참신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휴먼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경상학부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사이버교육은 일부 계층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학교에서는 물론이요, 일반인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향유하고 누리는 일반적인 교육의 형태가 된 것이다. 이처럼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교육환경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지난 10월 26일,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교육패러다임 변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EBS 광덕훈 사장의 특강에 쏠린 관심도 사뭇 컸다.

정리 | 편집부

EBS 광덕훈 사장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의 교육패러다임 변화>

대학의 미래가 달라진다 맞춤형 교육, 학습경험의 개별 관리 가능

광 덕훈 사장의 이번 특강은 “Do you know 2.0/3.0/4.0/5.0?”이라는 질문 아래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주목이었다. 모바일 빅뱅으로 인해 우리는 3가지 변화를 맞이했다. 먼저는 선별된 정보가 ‘나’를 향한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정보의 파급력이 무한하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는 일상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보고가 되었다. 덕분에 사회 각 영역의 발전 속도는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 제기

그렇다면 경제사회 환경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소집단 커뮤니케이션이 부상하고 모바일이나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넷 세대가 활약하는 네트워크 사회가 되었으며, 집단지성이 각광 받는 지식의 개념변화가 일어났다. 그리고 디지털 프로슈머가 등장하고 매스미디어나 매스마케팅이 붕괴되는 새로운 경제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협업이 강조되고 개인 맞춤형 소비 생활이 주를 이루는 삶의 양식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그리고 창조사회로 진보하고 있는 지금, 새로운 사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스마트 환경이 도래하면서 교육 환경도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10대는 잠재적인 콘텐츠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 대다수는 스마트폰을 학습에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의 초점도 달라져야 한다. 결과 중심 교육에서 과정 중심교육으로, Number One 교육에서 Only One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미래의 교수 및 학습방식은 공유와 개방, 참여와 협력의 다중구조로 진화해야 한

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소셜 소프트웨어의 활용, 이러닝 솔루션의 오픈소스화, 협력학습을 위한 공동체 구성, 품질 인증 및 학점 교환시스템의 적극적 도입, 미래 교육환경을 대비한 지속적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의 명성,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로 결정

또한 소셜 네트워크는 온라인 정보와 오프라인 정보 결합을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위키피디아 등 집단지성의 효과적인 구축과 공유를 가능케 했다. 더불어 실시간 전파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마저 벗어나고 있다. 미래의 대학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고, 학습경험의 개별적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학의 학비 역시 대학의 명성이 아니라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때문에 이제는 웹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며, 구성원 간 협조 강화를 통한 정보의 공유 및 유통의 활성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녹색성장 기반의 Green IT 전략이 적극적으로 구현되고, 수요자 및 고객 중심의 참여자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한다. 나아가 유익한 자료의 확보 및 협력 모델 구축과 오픈소스 기반의 콘텐츠·솔루션·서비스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물론 이 모든 것의 기반에는 도덕적 결함이 없는 삶의 추구가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특강의 제언이었다.



광덕훈 EBS 사장 약력

서울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83년부터 방송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EBS 수능강의 자문위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방송대 인천지역대학장, 교육인적자원부 자문단 e러닝 분과위원장 등을 거쳤으며, 2009년 10월 EBS 사장에 선임된 바 있다.

필리핀 인당마을 집짓기 「SCU사회봉사단」

따스한 배려로 엮은 행복한 아름다움 지구촌 곳곳, 사랑을 전해요



올여름, 황금 같은 휴가를 고스란히 반납하고 국내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에 나섰던 'SCU사회봉사단'이 이번엔 필리핀 인당 마을(In Dang Cavite)을 방문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때와 장소는 물론, 그 대상까지도 가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해 보여주는 'SCU사회봉사단' 회원들에게서는 고향같이 푸근한 향취가 담뿍 배어 있었다.

글 | 편집부

지난 9월, 선선한 가을바람을 등지고 'SCU사회봉사단 6기생'들이 과감히 찾아간 곳은 태양의 나라 필리핀이었다. 마닐라 외곽에 위치한 자그맣고 소외된 마을 '인당(In Dang)'에 따스한 손길을 전해 주기 위함이었다. 문명적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컴퓨터 교육장 등 편의시설을 마련해주는가 하면, 한국 주부로 지내느라 고국에 한번 다녀오지 못한 다문화 가정의 필리핀 여성 4인을 선정하여 친정 식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히고자 하였으며, 단원들 개별적으로는 미용봉사(남윤경·박진규 동문) 및 의료봉사(강릉 동인병원 협력)를 펼쳤다.

SCU사회봉사단이 오지나 다름없이 열악한 인당 마을의 소식을 접하고 나눔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였다. '사랑의 집짓기(해비타트 운동)' 프로젝트로 포문을 열어 오늘날에는 필리핀 내 장애인 시설 및 고아원 봉사에까지 두루 참여하고 있다.

“우리 봉사단이 해외에까지 활동영역을 넓힌다는 생각에 처음엔 막연히 즐겁고 설레기만 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서 인당 마을의 실상을 확인하니 그저 눈물만 나더

라고요. 그간의 생에 대한 반성과 감사가 동시에 밀려왔죠.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욱 거세게 솟구쳤어요. 그때부터 절약을 습관화했고, 소소한 일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인당 마을 주민들을 통해 저희가 배우는 게 더 많은 듯합니다. 참 희한하죠?”

신동주 단장(사회복지학과 '09년 졸업)을 비롯, 단원들이 밝힌 소회는 놀라우리만치 한결같았다. ‘배우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진귀한 이치를 몸소 깨달아가고 있다는 SCU사회봉사단. 그래서일까. 발족된 지 불과 6년 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회원수가 어느덧 100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사회봉사의 중심에서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단원들에게 에너지가 되는 봉사단이에요. 앞으로도 잘 협력해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언제나 교만과 시기를 경계하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문들 뿐만 아니라,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자격 요건도 따지지 않고 환영한다는 SCU사회봉사단은 ‘꿈을 나눔’이라는 설립 모토처럼 그야말로 누구한테나 활짝 열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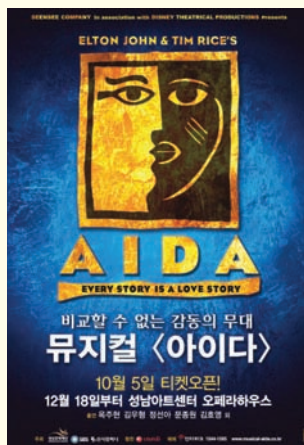


MUSICAL

브로드웨이 최고 장인들과 함께 만든 꿈의 무대 2010 아이다

• 기간 : 2010. 12. 18 ~ 2011. 3. 27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팝의 거장 엘튼 존과, 뮤지컬 음악의 대표적 작사가 팀 라이스의 콤비로 탄생한 뮤지컬 대작 <아이다>가 12월 18일 공연을 앞두고 있다. 2010 뮤지컬 <아이다>는 옥주현, 정선아, 김우형을 비롯 치열한 오디션을 통과한 24명의 최정예 배우들이 새로운 리더십의 전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박칼린 연출, 그리고 브로드웨이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 잊지 못할 감동의 무대를 선보일 것이다. 특히 5년 전, 뮤지컬<아이다>의 한국 초연 당시 음악감독으로 작품에 참여했던 박칼린이 이번에는 국내 연출을 맡으며 2010 뮤지컬<아이다>의 총체적인 지휘봉을 잡았다. 5년간의 장기 공연 동안 내내 브로드웨이 쇼 세일즈 랭킹의 최상위에 머물렀고, 53개 도시 북미투어, 유럽과 일본의 장기 공연을 모두 성공을 거두며 시공을 초월한 역작으로 사랑 받았다.



Netiquette

손쉬운 정보 전달, 여기에도 깊은 예절

세상이 진보하면서 인터넷이 각 가정이나 전국 어느 곳에도 보급되면서 손으로 직접 쓰던 편지보다는 쉽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 E-MAIL(전자우편)이 많은 인기를 얻는 추세다. 때로는 직접 종이에 펜을 굴려가며 써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끔 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 간에 사이를 더욱 좁혀준 것 같다. 이를 대변하듯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손쉽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대표적 예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편리하고 즐거운 전자우편을 사용할 때도 물론 예절이 있다.



E-mail 네티켓

- 전자편지의 예절은 사회생활에서의 편지 쓸 때 지켜야 할 예절과 비슷하다.
- 자신의 개성을 지나치게 돋보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과 잘 어울리도록 한다.
- 자기의 가치관을 고집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전송한 편지는 다시 고칠 수 없으므로 작성한 편지는 다시 검토한 후 발송한다.
-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미리 밝히고 편지를 보내도록 한다.
-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 익명성을 이용해 인신공격을 하거나 비밀번호의 노출로 인해 남의 파일을 손상시키거나 욕이나 음담패설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한다.
- 동일한 메일을 여러 번 보내 상대방의 E-MAIL서버나 편지관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Book

오창환 교수 추천 인간의 미래

생명공학의 성과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설명한 『인간의 미래』. 이 책은 유전자 치료, 유전공학, 줄기세포 연구, 생명 연장, 뇌와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클로닝 등 생명공학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과학윤리에 관하여 설명한다. 저자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개선하려는 본성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바꿀 수 있음을 말한다. 또한 과학 소설의 소재들이 실현될 날도 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라메즈 남 지음, 안윤호 옮김, 동아시아 출판사



구희정 교수 추천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육아지혜

이 책은 1980년에 출간된 『젊은 엄마를 위하여』의 개정판으로, 새로운 세대의 젊은 부모들이 알아야 할 자녀 교육을 제시한다. 그 안에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양육에 대한 오랜 지혜와 원리, 이론과 실제, 생활 속에서 유념해야 하는 교육지침 등이 담겨 있다. 저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당면하게 되는 어려운 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자신의 경험담과 유아교육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부모 스스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인지 생각하도록 유도한다.

이원영 지음, 샘터사



PUZZLE

아래의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답이 보입니다. 본 퀴즈 정답은 서울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홈-대학생활-이벤트)로 들어가서 보내주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을 주점하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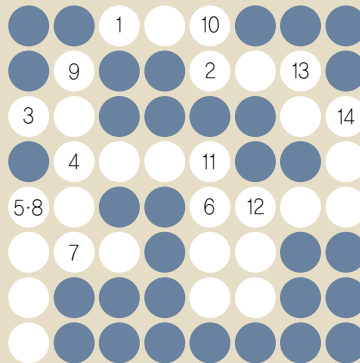
가로열쇠

- 고려 말부터 이어진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 한국의 옛 대학(大學)
- 최근 아시안게임이 열린 중국 남쪽의 항구 도시
- 운동 경기나 기술 따위에서, 기량이 뛰어나 대회에 참가한 사람
- 우리나라의 공식명칭
- 공부를 위해 학교에 들어감
- 사이트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가격을 알아보고 비교하는 것
- 혼자 살기 편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아파트

세로열쇠

-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청원하는 문서
- 대학 이후, 전문분야를 교육하기 위해 설치한 대학원. 금번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대학원 인가를 받았음
- 일상을 떠나 다른 장소를 방문하여 자연환경과 풍습을 경험하며 유람하는 일
-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 두 사람이 맞서 격투를 벌여 승패를 가리는 경기
- 비울 때 입는 옷
- 큰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다리

2010 겨울호 문제



2010 가을호 정답



■ 2010 가을호 당첨자 & 한마디

박미량(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식지 디자인이 예쁘고, 내용면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나 참 좋습니다. 해외에 나가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넓은 견문을 쌓는 학우들의 모습이 당당해 보입니다. 앞으로 아낌없이 봉사하는 모습처럼 따뜻한 내용들이 많이 담겼으면 합니다. 또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싶네요.

명영림(대구 달서구 상인동)

다양한 소재와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량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SCU인만의 공부 노하우나 '성공신화'를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양미래(전북 완주군 봉동읍)

즐거워 소식 더욱 많이 전해주세요! 학교 발전에 대한 내용도 좋았지만, 쌀쌀한 계절을 덥힐 수 있는 훈훈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세요~.

오정매(전북 순창군 순창읍)

선배님들의 성공사례, 학우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애기로 담아주었으면 합니다. 진솔한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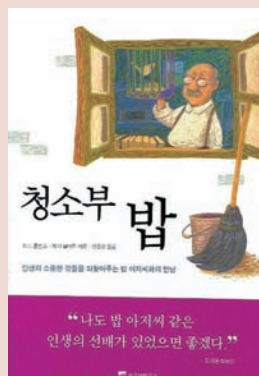
정소희(경기 평택시 신장동)

소식지의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차원의 홍보가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 학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 간혹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민 교수 추천 청소부 밥

『청소부 밥』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다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 또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기회를 선사한다. 많은 자기계발서들이 '지금 당장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강요하는 것과 달리 '성공은 삶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기본 바탕아래 일상의 작은 일, 흥미로운 경험담을 부담 없이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행복하기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하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알려준다.

토드 홉킨스 · 레이 할버트 지음, 신윤경 옮김, 위즈덤하우스



박기훈 교수 추천 체인지 메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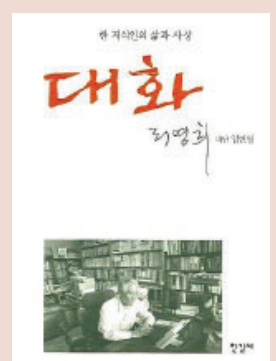
이 책은 '사회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명인부터 이제 막 미지의 땅에 궤적을 남기기 위해 도전하는 젊은 신예들까지, 보통 사람들과 남다른 사고방식과 직업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여기 나온 18인의 매력적인 사회기업가들의 활동상은 한 발 앞서 세상의 문제와 모순을 깨닫고 뭔가를 바꾸겠다는 의욕에 넘쳐 빛을 발한다. 이들의 활동은 내가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등을 고민하며 자신의 장래를 펼쳐나갈 실마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작은 힌트를 안겨준다.

와타나베 나나 지음, 송수영 옮김, 벅스BOOKS



이진경 교수 추천 대화

이 책은 우리 땅에서 '지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를 생생하게 증언한다. 리영희의 글이 학자들에 의해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로 꼽히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며 삶을 통째로 뒤흔들었던 까닭은 오직 한국 현대사의 온갖 질곡 앞에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글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글쓰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이것, 온전한 진실을 써내려간다는 이 기본적인고도 충실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다. 그는 이 의무를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여기고 온몸으로 실천했던 것이다.



리영희 지음, 한길사

2011학년도 전기
신입생 입시설명회

서울사이버대 대학원,
온라인 석사 과정 첫 입시 문 열어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26일 본교 5층 회의실에서 대학원 전기 신입학생 모집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기 모집은 휴먼서비스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과정), 상담심리대학원(상담심리학 석사과정)에서 각각 60명씩 총 120명을 선발하며,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두 곳 모두 특성화된 분야로 미래 고령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접목한 최적의 커리큘럼에 현장 전문가가 초빙 특강 등의 새로운 학습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졸업 후 현장전문가로서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 또한 석사과정에서 교수와 학생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만큼 다양한 세미나와 화상회의 등을 통해 상호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isc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학년도 대학원 모집안내

■모집전공 및 인원

대학원	전공	정원내		정원외 ¹⁾
		일반전형	특별전형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서비스전공	48	12	6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전공	48	12	6
합계		96	24	12

주¹⁾ 정원외는 정원내 정원의 20%이내에서 선발하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 하는 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선발기준

1. 1차전형

- 입학 지원서류 심사요소 : 자기소개 및 경력서, 학업·연구계획서, 학부과정 성적
- 모든 전형 지원자에 공히 학부 4년간 평점평균 2.5점을 1단계 전형의 합격 필수요건으로 하여 전형함.
- 정원내 특별전형 및 정원외 전형의 유형별 지원자격 요건은 입학지원상의 전제요건일 뿐 전형요소로 반영하지 않음.
- 학부를 편입학한 경우 최종 출신대학의 성적으로만 반영

2. 2차 전형

- 면접·구술시험 • 지원 동기 및 연구수행 능력, 개인 소양평가

※ 1차 전형에서 3배수 이내 선발된 자에 대하여 2차 전형 실시

사색의향기문화원과 MOU 체결
문화콘텐츠 교류·문화사업 공동 진행

서울사이버대학교는 9월 29일 본교 1층 회의실에서 사색의향기문화원(원장 공용철)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사색의향기는 회원수가 12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온라인 문화커뮤니티다. 이번 MOU 체결로 사색의향기 문화원 강사의 강의를 서울사이버대학교 특강 형식으로 제공되며, 사색의향기 회원들은 서울사이버대의 무료특강 및 강좌를 제공받게 된다. 양 기관은 행복지수 조사발표사업 등 문화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 및 문화 콘텐츠를 상호 교류키로 했다. 이재웅 서울사이버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본교 재학생들에게 폭 넓고 전문화된 문화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본교의 질 높은 무료특강들을 사색의향기 회원들과 나눌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재능교육과 산학협력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1월 3일 재능교육(사장 양병무)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산학협력 체결을 통해 재능교육과의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재능교육 임직원에게 무료특강과 강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사이버대학 이재웅 총장은 “재능교육 임직원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체결식에는 이재웅 총장과 재능교육의 양병무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러시아 국립 메시대학교와 MOU 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러시아 메시대학교(총장 티호미로프)와 교육분야 공동연구 및 상호교류증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학교는 교육과 연구의 국제교류와 상호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며, 양 대학의 교수와 학생 교환, 교

직원 연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된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그동안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스웨덴 스톡홀름대, 러시아 국립극동대와 국립이르쿠츠크대, 미국 초안대와 콜로라도크리스천대, 중국 하얼빈 공정대, 태국 치앙마이 라자밧대 등 세계 각국의 명문대와 교육 및 학술 협정을 체결하며, 대학간 공동 연구 및 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고 재학생들의 해외탐방 기회도 확대 지원하고 있다.

육군 제5군단과 MOU체결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13일 경기도 포천군 육군 제5군단(군단장 심용식 중장)에서 육군 제5군단과 장병 및 간부의 교육기회 확대와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양 기관의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

구 추진 및 축제, 병영체험 등 각종행사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육군 제5군단 장병들은 서울사이버대학교로부터 제대 후 사회 적응과 학위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상담관(군경상담학과 재학생 중 자격증 소지자) 지원을 통해 각종 상담 및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2011 수첩 및 카렌다 이벤트 2011학년도 수첩 및 카렌다 신청하기!

■신청기간: 2010. 11. 22(일)~12. 6(일)

■신청방법: 본교 웹사이트 <http://www.iscu.ac.kr>

정확한 배송을 위해 최근 변경된 주소로 개인정보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능동형 e러닝시스템 특허출원

서울사이버대학교는 9월 30일 콘텐츠 개발 및 관리, 학습관리 3단계로 구성되는 e러닝 운영시스템의 특허출원을 마쳤다. 이 시스템은 학습활동 목적에 따라 교수가 별도의 게시판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외부 웹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를 학습내용과 도구로 활용하는 특징을 갖췄다. 또 단순 게시글 목록 형태의 기존 e러닝 시스템과 달리 역할지정, 그룹지정, 복수주제 부여, 팀별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조합을 통해 수업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게시판을 만들어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노인복지학과
정영애 교수

제27대 한국여성학회 회장 취임

노인복지학과 정영애 교수가 11월 20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여성학회 제27차 추계 학술대회 총회에서 제27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정 회장은 대학 교수뿐 아니라, 고위직 여성 진출을 지원하는 대통령 비서실 군형인사비서관, 여성정책담당자, 대학부총장, 여성단체 활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정 신임 회장은 "한국여성학회가 학문공동체로서 회원들간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젊은 여성연구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울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여성학회는 한국사회에서 여성학을 학문적으로 정착시키고 체계화시키려는 공동의 지적 광장을 마련하고자 지난 1984년 10월에 창립됐다.



2010서울사이버
디자인대전 개최

21세기형 전문가 양성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1세기형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제3회 2010서울사이버디자인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상상'을 주제로 감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개성화와 전문화,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응모분야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부문 ▲시각디자인 부문 ▲사진부문 등 총 3부문이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0일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열리며, 대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은 총 1,500만원의 상금을 부여 받는다. 특히 특선 이상 수상작은 12월 14일부터 30일까지 북서울 꿈의숲 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

부동산 전문가 초청 특강 및 세미나



부동산 전문가 초청 특강



부동산 전문가 초청 세미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10월 30일, 11월 6일 본교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동산 전문가 초청 특강과 세미나를 각각 개최하였다.

10월 30일 열린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인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과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진현환 주택정책과장이 '2011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진과 서울립대 오동훈 도시행정학과 교수, 건국대 이현석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어 11월 6일 열린 특강은 국내 부동산 시장 주요 전문가들을 초청해 세계 부동산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실태와 비전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홍해근 세계부동산연맹 사장, 채덕선 (주)케이리츠파트너스 대표이사 부사장, 김대형 (주)코람코자산신탁 부회장이 전 세계 부동산시장의 트렌드와 한국부동산시장의 과제, IMF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관리 시장의 현황과 전망,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시장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용희 부동산학과장은 "이번 특강과 세미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더불어 부동산학에 대한 학문적 동기를 확대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신여대 중앙도서관 이용 서비스 개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성신여자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재학생(휴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한 성신여대 중앙도서관 '인쇄출판도서' 열람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용 범위는 ▲인쇄출판도서(약 70만권 분량) 열람 및 복사 가능(대출 제외) ▲중앙도서관내 PC에서 해외학술DB, 국내학술DB 전체 이용 가능(eBook 제외) ▲주제자료실 이용(성신여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제외, 일반열람실 이용 불가) 등이다. 이용방법은 최초 1회 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 방문하여 '성신여대 도서관 이용 신청서' (사진 부착)를 작성하면 되며, 이후부터는 자동 갱신이 가능하다.



김미주 교수, 국제워크숍 주제 발표



보건행정학과 김미주 교수는 10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건강복지네트워크 국제워크숍에 참석, <한국에서의 고령자의 사회공헌과 치매케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11월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는 건강증진학교 시범사업의 연구진 및 평가위원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영민 교수, 물류교육관련 논문 게재



국제무역학과 김영민 교수는 국제e-비즈니스학회지 9월호에 <e-learning 물류교육에서 학습자 특성, 학습참여 및 학업 성취도의 관계 연구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김중훈 교수, 출판기념회



부동산학과 김중훈(한미파슨스 회장) 석좌교수는 11월 11일 삼성동 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 저서 『우리는 천국으로 출근한다』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에서 김 회장은 한미파슨스의 사례를 통해 직장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박종선 교수, 이러닝관련 논문 게재



교양학부 박종선(교수학습지원센터장) 교수는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집(제13권 제4호)에 <사이버대학 성인 학습자의 이러닝 준비도와 학습활동 분석>(An Analysis on e-Learning Readiness and Learning Activities of Adult Learners in a Cyber University)이란 논문 공동으로 게재했다. 또한 9월 17일 e-Learning week 2010 : International conference에 <The Study of Module Based Courseware Design for Flexible Online Instruction> 논문을 게재했다.

SCU동정

서영수 교수, 『최신금융·보험의 이해』 출간



금융보험학과 서영수 교수는 9월 10일 『최신금융·보험의 이해』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금융저변에 대한 기초지식과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금융소비자에 관한 내용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



심선경 교수, 『지역사회복지론』 출간



복지시설경영학과 심선경 교수는 8월 31일 『지역사회복지론』(심선경 외 6명 공저, 학지사 발행)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실천기법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오창환 교수, 『데이터통신』 출간



컴퓨터정보통신학과 오창환 교수는 9월 17일 『데이터통신』(한국학술정보 발행)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마칠 수 있는 분량으로서, 데이터통신에 관한 핵심 요소가 중점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우경 교수, 논문 게재 및 저서 출간



상담심리학과 이우경 교수는 SSCI 논문인 Stress and Health지 10월호에 <The effects of mindfulness-based group intervention on the mental health of middle aged Korean women in community>란 논문을 게재했으며, 11월 말 『사랑중독』(Brenda Schaeffer 저, 학지사) 번역서를 출간했다.

이진경 교수, 부동산관련 논문 게재



부동산학과 이진경 교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8월호에 <정비사업 가구특성에 따른 재입주 선택 및 이주 지역 선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이성태 교수, 콘텐츠 설계전략 관련 발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성태 교수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광주대학교에서 열렸던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학습자의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환경에 따른 학습분기형 콘텐츠 설계 전략>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향아 교수, e-learning 논문 게재 및 작품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이향아 교수는 한국디지털디자인 학회지 7월호에 <e-learning 콘텐츠의 학습효과 증진을 위한 문자 분석>이란 논문을 게재했다. 또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강원일보 창간 65주년 기념 '65인 일러스트레이터 초대전'과 11월 26일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주최한 '2010 회원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고 전시하였다.

임태순 교수, 성서경영 관련 논문 게재



금융보험학과 임태순 교수는 한국로고스경영학회지 8월호에 <다윗을 통하여 본 성공한 부유자와 성공자의 역할>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전광호 교수, 기업신뢰 관련 논문 발표



경영학과 전광호 교수는 2010년 10월 30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열린 2010년 마케팅 추계통합학술대회에서 <기업간 관계에서 신뢰의 차원별 효과에 관한 연구: 관계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정영애 교수, 『가족과 젠더』 저서 출간



노인복지학과 정영애 교수는 9월 20일 『가족과 젠더』(장화경과 공저, 교문사 발행)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젠더 또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가족과 연관된 여러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기존의 가족 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차명희 교수, 논문 발표 및 작품 전시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차명희교수는 10월 30일 계원조형 예술대학에서 개최된 2010 춘계 한국게임학회 학술대회에 <공간인지를 이용한 자율가상캐릭터의 메모리 기법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하고 우수발표상을 수상했다. 또한 (사)디지털디자인협회가 주최한 2010 베스트디지털디자이너 국제초청 정기회원전에 'Digital World'라는 제목의 작품을 출품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강원대학교 디자인대학 갤러리에서 전시하였다.

2011학년도 상반기 신·편입생 모집

온라인 인프라 구축한 미래 교육의 산실 서울사이버대학교



20 00년 국내 최초 사이버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서울사이버대학교는 학생들의 전문 지식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평생교육의 동반자이자 세계적인 e-learning 교육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정립해나가고 있다. 성인 전문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10년 12월 1일부터 신·편입생 총 8,644명을 모집한다. 하반기 모집학과는 ▶인간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복지시설경영학과) ▶심리·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가족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사회과학부(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경상학부(경영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IT·디자인학부(컴퓨터정보통신학과,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등 5개 학부 14개 학과이다.

이번 하반기 모집에는 일반전형, 특별전형, 학사편입전형, 산업체·군위탁생전형, 장애인전형 등으로 나눠 총 8,64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신입생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고교 내신이나 수능성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2학년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35학점 이상, 3학년은 70학점 이상 취득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apply.isc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편입생 모집 2010년 12월 1일 부터
입학문의 **02-944-5000**

■ 2011 상반기 모집인원

전형	정원내 전형			정원의 전형																		
	일반+특별			산업체 위탁생			군 위탁생			학사	장애인			교육기회균등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학부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3학년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신입	2편입	3편입
인간복지	380	31	480	164	103	123	164	124	140	164	41	28	33	41	16	29	16	15	14	82	55	71
심리상담	410	33	578	190	185	139	190	130	121	190	47	46	36	47	37	33	19	19	14	95	92	74
사회과학	320	36	246	106	69	65	106	78	80	106	26	22	19	26	22	18	10	9	8	53	43	42
경 상	260	42	247	92	53	55	92	88	74	92	23	20	19	23	22	19	9	9	7	46	40	37
IT디자인	130	19	139	48	46	27	48	41	34	48	12	11	10	12	11	8	4	5	4	24	25	20
소 계	1,500	161	1,690	600	456	409	600	461	449	600	149	127	117	149	108	107	58	57	47	300	255	244
총 합	3,351			1,465			1,510			600	393			364			162			799		

■ 공통 학력자격

구분	학년 유형 구분	학력 자격
공통 학력 자격	신입학	-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2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4년제 대학교에서 1학년(2개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35학점 이상인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학년 편입학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4년제 대학교에서 2학년(4개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이 70학점 이상인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의 해당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시간제	-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입학전형별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모집학년
특별전형	직장인, 개인사업자, 농어촌거주자, 전업주부,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신입학만 해당), 전문대학졸업자(편입학만 해당), 글로벌 소양능력 우수자	전학년 모집
일반전형	학력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지원가능	전학년 모집
산업체 위탁전형	본교와 산학, 관학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기관 재직자	전학년 모집
군 위탁전형	부사관 이상 직업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학군 제후]에 의하여 각 군 참모총장의 추천확인을 받은 자	전학년 모집
학사편입전형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학년 모집
장애인전형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한 장애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자	전학년 모집
교육기회 균등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전학년 모집
재외국민 전형	교포자녀 또는 외국근무 재외국민 자녀	전학년 모집
북한이탈 주민 전형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5년) 중이거나 고교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 입학자	전학년 모집



- 발 행 처 서울사이버대학교
(142-700)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93-15
- 발 행 인 이재웅
- 편집주간 이항아 교수
- 편집위원 고윤승, 권기남,
니승성, 박병석 교수
- 발 행 일 2010년 12월 1일
- 기획편집 서울사이버대학교
출판부 (02)944-5216
(주)디플랜트네트워크
(02)518-3430